

We share God's Love with the disabled and orphans is North.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2016 VOL.5

www.greentreekorea.org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COVER STORY

2016 리우패럴림픽
1,500m 시각장애인 달리기
김철웅 선수, 이철웅 코치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는 통일부 산하의 NGO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북녘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연 6회 이상 북녘장애인 12개 시설에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 및 시설방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녘 전역 43개의 고아원도 북측과 합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장애인, 고아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과 통일세대 양성이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 아래 온 민족, 교회들, 성도들의 지원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OUR VISION

우리의 형제인 북녘 동포들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자원인 청년 인재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힘인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힘을 합하여
우리의 소망인 뉴코리아를 준비한다.

Share Love with our brothers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s

Intergrate with Korean Diaspora

Create New Korea



- 후원 문의 및 신청 T. 02-3482-2000
- 후원계좌 760737-04-007453 국민은행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 해외후원계좌 USA_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USA

Bank of America

Account No.3250-0868-6651

Swift Code:BOFAUS3N

Southern California Routing #026009593

Check to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Address: Joy Fellowship Church PO, box

CANADA_Poo-Reun-Na-Moo Charity Foundation

Branch No.92760

Account No.094252332924


Institution No.004

Swift Code:TDOMCATTTOR

E-mail:desk@greentreekorea.org

 www.greentreekorea.org
www.greentreeint.org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greentreekorea](https://www.youtube.com/greentreekorea)

CONTENTS

www.greentreekorea.org

감사의 말	p. 02
곽수광 이사장	
RECORD	p. 04
5주년 축하메세지	p. 06
5주년 감사메세지	p. 08
국제푸른나무 10대뉴스	p. 10
2015 재정보고	p. 12
국제푸른나무사업	p. 14
대북인도적사업	
해외구호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	
후원개발사업	
인터뷰	p. 36
후원자/ 홍지영, 임예진	
마포밀알선교단	
지역본부소식	p. 40
사업본부소식	p. 42
후원자 현황	p. 44
참여안내	p. 46
캠페인	p. 47
베들레헴플랜	p. 48



좌/ 김문철 위원장
우/ 박수광 이사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님들께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하나 소중하게 심는 마음으로 5년 전에 시작된 국제푸른나무가 이제 어느덧 어엿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남북이 팍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지만 그 막힌 담을 뚫고 작은 숨구멍하나 내고 작은 물줄기 하나 내는 우리의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는 어여뻐 여기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신영순 공동대표님께서 푸른나무 창립이전부터 뿌려 놓으셨던 고아와 장애인들을 돕는 귀한 사역들이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어려웠던 시절 고아원 원아들과 함께했던 사랑의 나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 장애인들도 문화 예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켜 올림픽에 출전시킴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사회인식개선에 기여한 일,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정말 많은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북녘 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시작한 국제푸른나무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도 하였고, 국내최초로 통일시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국제 푸른나무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그 가지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그리고 장차 통일된 이 민족이 전 세계평화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 후원자님들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가 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과 혼란은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의 아픔과 상처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 저는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낍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민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모든 영역을 개혁하는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이 불길이 모든 분단의 장벽까지 불태워 통일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까지 국제푸른나무는 더 깊이 깊이 생명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지금 여기에서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국제푸른나무 이사장 

2016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 단체로 선출되다!

국제푸른나무는 2016년 2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정기총회에서 부회장단체로 추천 받아 올해 부터 북민협 임원단체로 주도적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곽수광 이사장님은 먼저 ‘신생단체인 우리단체를 부회장단체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남북이 허리가 잘려서 장애가 된 한반도를 치유하는 것에 우리 장애인들이 앞장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북 장애인사업을 펼쳐나 가고 있는데, 2016년 북민협부회장단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취지 및 목적

북민협은 남북의 화해와 상호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단체들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NGO의 협의체입니다.

주요 사업

1.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
2. 대북지원단체간 협력 및 정책 논의
3.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대북지원분야 정책 제안 및 협력
4.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활동
5. 워크숍, 학술회의 등 개최
6. 대북지원 관련 자료집 발간





2016 주요 활동

- ❶ 대북지원이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 인권법’의 규정을 받게 되어, 이는 인권과 인도 지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북민협은 정책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을 작성하고 있다.
- ❷ 1995년 북한의 긴급 식량지원 요청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20년이 흘렀다. 북민협은 그간의 대북지원의 역사를 정리한 ‘대북지원 20년 백서’를 발간하며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년의 대북지원의 경험과 의미를 돌아보며,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대북지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김준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❸ 북민협 회원 54개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북민협 실무자간 소통의 시간, 정보공유, 평가회, 북중접경지역 답사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0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6년도 정기총회
(부회장단체 선출)

02 '대북지원 20년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

03 북민협 회원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위한 강의



5 years

ANNIVERSARY

5주년을 맞은 국제푸른나무를 축하하는 사랑의 메세지!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부탁드립니다.

홍보대사/작가 이지선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이 더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친선대사/배우 정준호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설립 5주년을 맞은
국제푸른나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선대사/아나운서 황현주

국제푸른나무 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식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해를 맞이하네요.
처음부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국제푸른나무!
통일세대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홍보아티스트/CCM가수 최덕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장애인, 고아들은
누가 봐도 이 시대의 자극히 작은 자임에 틀림
이 없을 것입니다. (사)국제푸른나무는 우리가 지
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매우 고마운 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귀
한 단체의 일원이 되어 섬길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
입니다. (사)국제푸른나무가 더욱 더 많은 북
녘의 어린이들과 장애우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
하며, 5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가수 여행스케치

국제푸른나무의 5주년~

다섯 개의 섬세한 나이테를 추카드라구요~
저희도 최근에 '나무야 나무야'라는 제목으로
1년간 공연을 하고 있어요.
국제푸른나무가 매일매일 더 커다란
희망나무로 자라나듯,
저희도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볼게요.
저희 여행스케치 나무도 좀 끼워주시구요~
늘 함께 파이팅입니다~!!!



배우 배현정

국제푸른나무 설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북녘땅에
귀한 생명들,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을 위해 작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국제푸른나무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행사/트레이너 정주호

국제푸른나무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치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누는
하나님의 푸른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가수 마로니에

안녕하세요~^^

가수 마로니에입니다.~

국제푸른나무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마로니에가 변함없는 나무 이름인것
처럼 국제푸른나무도 영원히 변함없이 쪽
변창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가수 레이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녕하세요 가수 레이비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평화공동체
국제푸른나무의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희생과 사랑을 품는 국제푸른나무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가는
레이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늘 함께해요! 응원합니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벌써 5주년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저희도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국제푸른나무가 있기까지 항상 믿음으로 지지하여주신
후원자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후원자님과 함께 '통일'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제푸른나무 본부전직원





국제푸른나무 5년의 나이테

국제푸른나무 10대뉴스

HIGHLIGHT OF GREEN TREE INTERNATIONAL

01 / 국제푸른나무 창립기념예배

2011년 5월 17일 온누리교회에서 국제푸른나무 창립 총회 겸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국제 푸른나무의 정식 출범을 축하하며, 뉴코리아를 향한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년을 맞아 뉴코리아를 위해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02 / 평양 민족 장애인·원아 지원 협력사무소 설립

2011년 4월, 북녘의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조선장애자보호맹중앙위원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고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평양 민족 장애인·원아지원 협력사무소>를 평양에 설립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한 민족화합 통일의 기초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짐해봅니다.



03 / 북측 장애인 선수단 장애인올림픽 참가 협력 지원

국제푸른나무는 북녘 장애인선수가 최초로 참가한 2012년 런던패럴림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쿠알라룸푸르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패럴림픽까지 지원하며 북녘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체육 기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4 / NK 희망 프로젝트 시작

2012년에 한민족한자녀 품기 민족운동과 북녘 어린이 희망 꿈터자매결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희망의 등불(태양광 충전식 전등), 내복 보내기, 한가위 한민족한 밥상, 비상식량 보내기 등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 홍보대사, 친선대사, 홍보아티스트 위촉 (이지선, 정준호, 황현주, 최덕신)

국제푸른나무의 1호 홍보대사로 2013년 12월 19일 이지선 작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2일 정준호 배우, 황현주 아나운서, 최덕신 CCM가수를 친선대사, 홍보 아티스트로 위촉하였습니다. 후원집회와 후원콘서트 등 활발한 나눔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6 / 통일세대를 위한 북녘장애인제도 및 정책 포럼 개최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으로 2014년에 통일세대를 위한 포럼을 연세대와 강남대, 대구교육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17년간의 북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2, 3차를 진행하며 미래 통일을 바라보고, 생소한 북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배우며 앞으로 남북의 복지균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07 / 제12회 민족화해상 수상

민족의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 단체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2014년 12월, 국제푸른나무가 선정되었습니다. 통일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고,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 화합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국제푸른나무가 되겠습니다.



08 / 해외구호 및 자원봉사자 파견

국제푸른나무는 국제구호지부인 '네이션임팩트'를 설립하여 제3세계 아동과 건전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캄보디아 찐력마을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완공하였고, 다일공동체와 함께 네팔 지진피해지역을 위한 긴급구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청년인재양성을 위해 2015년, 2016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을 말레이시아와 몽골에 파견하였습니다.



09 / 지속적인 대북 장애인지원사업

국제푸른나무는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사업에 청각검사실 자재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동대원 장애자운동관 건축, 자동차 운수 사업소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 /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시작

북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 시도는 통일 이후에 즉시 투입되어 북녘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6년 9월, 제1기 통일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기는 총 6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28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 재정보고

2015년 국제푸른나무 사업에 대한
재정보고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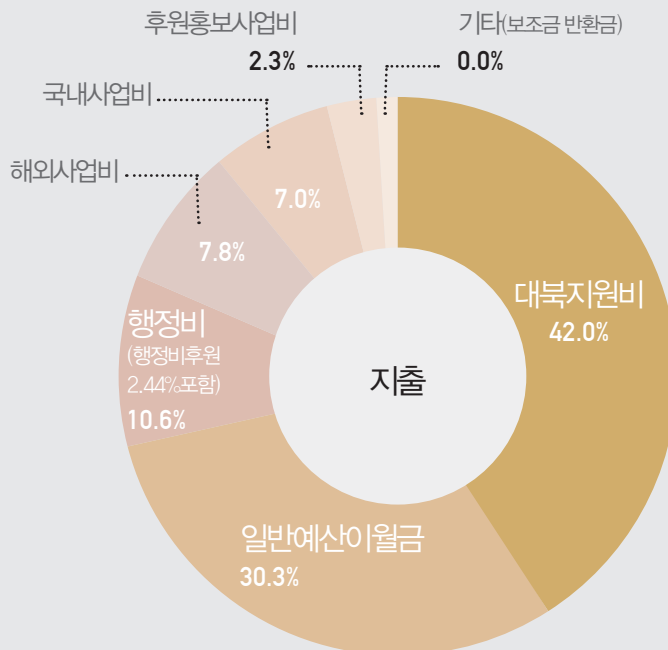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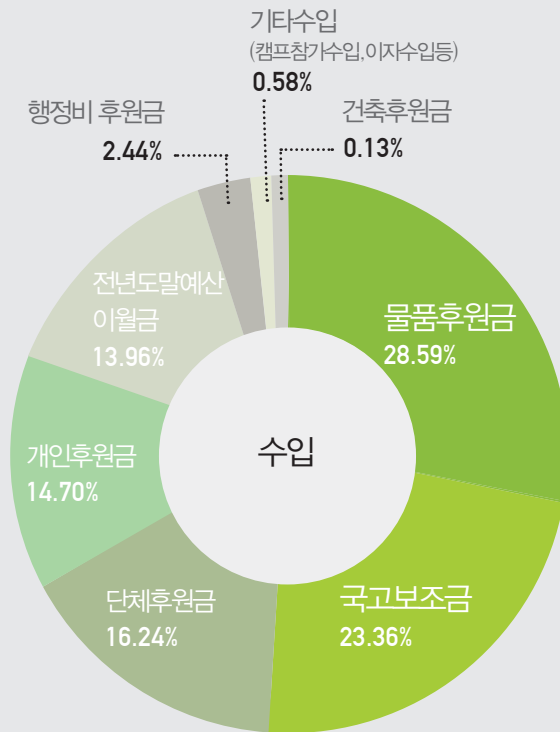
(단위: 원)

단체후원금	315,890,792
행정비후원금	47,435,070
개인후원금	286,034,388
건축후원금	2,490,000
물품후원금	556,262,560
국고보조금	454,494,711
기타수입 (캠프참가수입, 이자수입등)	11,206,035
전년도 말예산 이월금	271,655,625
합계	1,945,469,181

지출내역

(단위: 원)

대북지원비	814,690,586
국내사업비	136,005,700
해외사업비	152,059,024
후원홍보사업비	45,585,343
행정비 (행정비후원 2.44%포함)	206,942,151
기타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610,759
일반예산 이월금 (2016)	589,575,618
합계	1,945,469,181



대북인도적 사업

대북 장애인 지원
대북 어린이 지원





대북인도적사업 1 / 대북 장애인 지원

리우패럴림픽 이야기

글/ 김준 사무총장



지난 수개월 참으로 바쁘고 분주히 달려왔다. 국제 푸른나무(푸른나무 재단국가연합)는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 장애인 선수단 국제경기 참가지원을 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를 위하여 올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2016리우패럴림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수많은 국제정세를 지나오면서 난관과 실망도 많았지만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국제푸른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지원사업 밖에 없다는 소명을 가지고 달려 온 것 같다.

9월 2일 공항에서 리우로 26시간의 비행을 시작으로 15일의 흥분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좀 일찍 출발해서 하루가 지나고 시차적응이라는 말은 뒤로 미뤄두고 4일 새벽 공항으로 출발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 시키면서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국제공항 터미널 2에서 손님들을 기다렸다. 미리 연락해둔 브라질 원주민 교회들과 조우, 반가운 10여명의 환영인파가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었다. 한반도기를 손에 들고 기다린 2시간 남짓...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선수단! 20여 시간의 비행과 10여 시간이 넘는 환승시간을 잘 견디고 장애인들이 공항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대한민국 기지들도 나와 있던 터라, 이곳저곳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그 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송금정, 김철웅 그리고 선수단, 그리고 평양부터 함께 동행해주신 신영순 공동대표님을 볼 수 있었다.

반갑게 조우하고선 새벽 5시30분이나 되어서야 공항 밖으로 나와 선수촌과 호텔로 움직일 수 있었다. 내일 환영식에서 만날 기약을 하면서...



“잘 할 수 있지?”하고 물어보면

“일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웃으며 대답한다.

선수촌에서는 차량을 준비해서 이들을 마중해주었고, 시설들도 과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불편함 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도 이전 인천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 선수촌 식사보다 좋았다는 소감이 웬지 미안하지만 사실이다. 아주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교민들이 준비해준 환영식과 만찬, 20여명의 브라질 원주민들과 상파울루에서 6시간 차량을 타고 외준 감사한 교민들,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 함께 행복한 환영만찬을 가지고,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같이 준비된 음악과 공연, 화답의 노래들로 풍성히 채워진 환영식에서 행복과 평화, 한민족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매일의 일정들, 선수단에 주어진 차량이 있어서 막힘없이 장애인 경기장들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매번 보는 경기이지만 가슴 저리고, 흥분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경기들을 보게 된다. 탁구, 농구, 수영, 좌식배구, 육상 등 앞으로 북한의 장애인선수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훈련시켜야 하는지 살피고 조사하는 시간을 보냈다.

선수들도 경기 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철웅 시각장애 달리기 선수는 그다지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잘 할 수 있지?”하고 물어보면 “일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웃으며 대답한다. 사실 리우를 떠날 때 까지 한 번도 주눅 든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앞을 보는 도우미 이철웅이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11일 경기당일, 500M 경기에서 한 바퀴를 돌아 도우미 이철웅이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결국 중도포기하고 나왔다. 김철웅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었다. 이때 도우미 이철웅은 “철웅아, 다음에는 더 좋은 동무만나서 금메달 따라, 미안하다”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에 우리들도 가슴이 메어져왔다. 이후 며칠을 두 철웅은 두문불출, 밥만 먹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보냈다.

15일 송금정선수의 원반던지기 시합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치녀출전에, 귀하게 얻은 경기티켓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반 걱정반하고 있던 터라, 가능하면 금정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금정이는 며칠을 낮이고 밤이고 연습에 매진했고, 피약 별에 연습하다 더위를 먹기도 했었다. 당일,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차를 세우고 오니 벌써 경기장 입구는 인산 인해, 너무 감격했다. 사실 인천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에서는 응원단이 없어서 경기장이 썰렁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렘과 흥분으로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큰 육상경기장은 초만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경기장, 사실 브라질이 출전시킨 선수단만 200명 가까웠기 때문에 브라질 국민들의 흥분은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드디어 원반던지기, 사실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종목 변경과 연습기간이 너무나 짧았던 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송금정 선수는 기준기록을 통과하지 못하여 2차 시도를 포기하고 선수관리단에 이끌려 선수대기실로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경기는 마무리 되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경기였다. 사실 북한내의 장애인 선수관리와 선별작업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이 밀려왔다. 전국적인 선수 선별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좀 더 훌륭한 선수진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봐야 할 것 같다. 송금정 선수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를 마치게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보여줄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드디어 날이 밝아 선수단 18명과 스태프들이 버스를 빌려 유명지를 둘러보려고 출발했다. 사실 선수들은 사진찍는 것을 꺼연쩍어했다. 하지만 리우의 명물과 빵처럼 생긴 산이라 해서 붙여진 [빵지아수크르(설탕빵)]도 둘러보게 되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동안 연신 뱉은 탄성. 와~~ 와~~ 사실 정말 아름다웠다. 수많은 젊음들의 자유로움을 그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명물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차도 마시고, 놀이도 즐겨 보고, 현지인들과 배드민턴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평창올림픽 홍보관이 있어서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홍보관에 준비된 삼성 기어를 통해 4D 영상 체험도 해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보는 시간이 되었다.

9월 17일 리우에서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다 마쳤다. 15일의 장시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아쉬운 이별을 준비하는 아침이었다. 공항에서 그들과 이별하는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을 보았다. 송금정 선수의 두 다리 의족이 장착이 되어있었다. 송금정 선수는 환한웃음을 보이면서 감격에 젖은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한번 걸어 볼까요?” 옆에서 두 사람이 부축하고 생전 처음으로 지구에 발을 딛고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부축 받은 채로 한발자국 발을 내 던지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 걷는 걸음이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흘렀다. 같이 끌어안고 감격했다. 마지막 사진을 찍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평양에서 뵙시다.”, “꼭 해방산 호텔에서 묵으시라요.”, “인차 찾아갈 겁니다.”

모두 보낸 후 밀려오는 후회, 하루 15시간 이상을 분주히 움직이며 섬겼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해 줄 걸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속상했다. 그리고 혼자 다짐해 보았다. “다음엔 좀 더 잘 섬겨서 후회 없어야 할 것 같다.”





세계 장애인의 날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은 국제 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로 날짜는 매년 12월 3일입니다. 제7회 평양행사인 201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국제푸른나무도 초청되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석이 넘는 자리가 거의 다 채워져 있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김문철 위원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그동안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 진행했던 사업 소개와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곧 이어 맹인예술단원들의 악기연주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아들의 무용과 발레로 구성된 백설공주 공연과 지적장애 어린이들의 홀라후프 댄스 등 감동적인 공연에 모두 뜨거운 박수와 감탄의 환호를 보냈습니다. 북녘 장애인들의 뛰어난 예술 공연을 보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루 빨리 남북 장애인들의 합동 예술제를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대원 장애인 운동관 건축 현장

평양 중심부 대동강 동쪽에 위치한 동대원구역에 건축 공사 중인 동대원장애인운동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300평이 넘는 규모의 지상3층, 지하1층 실내체육관입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누구든지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 체력단련실, 베이커리, 식당, 안경점, 찜질방 등의 이용시설이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 외부공사는 마감단계이며,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운수 사업소

국제푸른나무가 지원한 '장원'이라는 조선장애자련맹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수 사업소'에 2016년 처음 방문하여 차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택시 20대를 허가받았고, 그 중 5대가 확보되어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형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북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택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청각 검사실

국제푸른나무는 2015년 12월, 청각검사실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청각 검사실 현황을 알아보러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로 아직 건물 내부 리모델링이 되지 못해 청각 검사실 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 내 최초 청각검사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인도적사업 2 / 대북 어린이 지원

원산 애육원, 육아원의 변화

작년 새로 건축되었던 사리원 애육원에 이어 원산 애육원, 육아원도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원산 애육원은 원산 시내에서 좀 벗어난 곳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4개의 웅장한 건물로 나란히 넓은 정원과 놀이장과 함께 아름답게 건축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이사하며 새로 부임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누었고, 모니터링을 하며 건물규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과 장난감과 놀이 기구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애육원 아이들의 건강도 많이 좋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리원콩우유빵공장

오랜만에 찾은 빵공장은 놀랄 정도로 공장 안에 다양한 모양의 빵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져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방문했을 때 빵 재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니, 빵 공장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빵을 만들어 판매해 볼 것을 조언하였는데 그것을 실천에 잘 옮긴 것이었습니다.

종류별로 꺼내 빵 맛을 보니 맛도 있고, 최상의 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머지않아 황해도에서 최고의 빵 공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며, 보람되고 벅찬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해외구호 개발사업

국제푸른나무 네이션 임팩트

해외 구호 개발 사업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푸른나무의 국제사업!

“네이션 임팩트”



국제푸른나무는 해외디아스포라와 협력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일도 사업의 일부로 되어 있다. 주로 하는 사업은 통일을 위한 남북한 문화교류, 즉 이름처럼 <푸른나무문화복지공동체>를 모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 문화 교류사업을 통해 민간의 교류, 장애인 교류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본부는 <네이션 임팩트> 와 <아프리카리더쉽 코리아>사업본부가 있다. 주로 아프리카 사업은 <아프리카리더쉽코리아>에서 맡고 있고, 기타 국제구호 사업은 <네이션 임팩트>에서 주관하고 있다.



<네이션 임팩트>사업은 캄보디아 <아동센터 건축>, 마다가스카르<긴급의료 보트 건조 및 운영>을 통해 680Km 광갈란 운하 지역 빈민들에게 긴급의료 및 수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3개 보건소 설치 운영, 초등학교 3개 건축 운영을 하면서 빈민지역 아동들에게 저렴한 사립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세워진 마다가스카르 무룬다바(바오밥나무국립공원) 초등학교는 최근에 개교식을 했다. 처음 이 지역을 탐방했을 때는 대낮에도 학교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행려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한손에 이구아나를 들고선 사진을 같이 찍어줄 테니 “1달러”를 달라고 구걸하였다. 부모들도 같이 나와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하는 수준, 학교에 가고 싶으나 생활환경이나 학교 위치가 너무 멀고, 학비가 비싸서 갈 수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웠다.

지부에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시고 학교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정부관료와 지부장님과 함께 주민들과 만났을 때 학교 건축에 대해 제안했고, 흔쾌히 마을에서 학교 부지를 쾌척해주어 얼마 있지 않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후원이 일어나게 되었다.

2016년 10월, 지금은 학교가 완공되어 아이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네팔 카투만두에 지진피해지역 돕기를 2015년에 진행하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이후 이 지역 아동들 중 봉제, 재단 등 디자인을 가르쳐서 자립하게 하는 교육기관을 돕고 있다.

네이션 임팩트의 꿈은 세상에 사랑의 충격을 안겨주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로 국제 푸른나무의 국제구호사역으로 국제적 빈민아동 및 긴급 구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 및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이로 인해 Zero Hunger, Zero Pain, Zero Tears 로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갈 것이다.



미래인재 양성사업

몽골청소년 합창봉사단
통일사회복지전문자 양성사업

<꿈과 사람속으로> 몽골청소년합창봉사단

心부름

여성가족부 주최 '2016 꿈과 사람속으로' 몽골 청소년합창봉사단 공모 사업을 미라클워커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 속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함께할 18명의 청소년 인재를 선발 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10일 동안 몽골에서의 생생한 현장스토리.



글/ 원현식

내 나이 20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경쟁 속에서 나의 10대의 종점으로만 보이던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것은 나의 10대의 종점인 동시에 나의 20대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대학생이 되고나서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니 주위를 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린 나머지 주변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있었고,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졌지만 아직 마음의 여유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국제푸른나무가 주관한 몽골청소년봉사단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몽골합창봉사활동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동안의 연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아이들에게 해줄 수업과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숙지한 끝에 8월 24일 우리는 마침내 몽골행 비행기를 탔다.

그토록 원하던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히스오양가'라는 학교에 들려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눈빛을 보고 가슴이 벅차왔다.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모습에 더욱 놀라웠다. 나는 우리 조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걱정했지만 말은 안통해도 몽골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주었다. 이로 인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봉사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5일 동안 아이들에게 합창 연습을 시키면서 가장 고마웠던 점은 매번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었을 텐데 시키지 않아도 서로 음을 맞추어 하모니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었다. 끊임없이 장난치는 모습들, 우리를 만날 때마다 달려와 반갑다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헤어질 때는 내일 다시보자고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분명 아이들에게 음악을 알려주고 가르치러 왔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봉사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았다. 흙먼지 날리는 마을 밖에 만든 판자옐타리 사이로 보이는 자그맣고 낡은 게르(몽골 전통 가옥)에서는 아늑함과 따뜻함이 느껴졌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얼굴에 근심 없는 웃음은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의 색깔을 본 순간, 바쁜 도시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마을사람들의 마음속 여유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가난할수록 불행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사랑이 가난할수록 불행하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무대를 올라 합동공연을 잘 마치고나서 서로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 음악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쌓인 정과 함께 보냈던 시간 속에 싹튼 애정이 헤어짐 앞에서는 추억 속 아쉬움과 그리움이 되어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우리와 아이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들어도 끊임없는 장난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잃어버린 내 마음 속에 나눔의 여유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태를찌 국립공원에서 하나의 작은 별들이 모여 밤하늘 전체를 아름답게 빛내는 모습을 보고 한 음, 한 음, 각자 다른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 소리 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우리의 합창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번 몽골합창봉사활동을 마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앞으로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 감에 있어서 미움과 질투라는 감정이 들 때 이 별들을 떠올리고 합창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 1기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통일’과 ‘사회복지’라는 주제아래 모인 사람들.
강사를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동자가 가득한 곳.
늦은 시간까지 열정이 넘치는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제1기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일시: 2016년 9월 29일 ~ 11월 5일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국제푸른나무

공동주관: 한국 CISM 연구소

통일, 준비하는 기다림

시간은 유수같다고 했던가. 어느덧 분단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허망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통일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쪽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또는 남북 교류 시 북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준우 교수님에 의하면 북쪽의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통일 되었을 때 사회복지 인력이 최소 1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1만 명의 남쪽 인력이 북쪽의 현지 사회복지인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또는 북에서 직접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비의 첫 걸음, 지속적인 관심

사회복지 업무로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업무 후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 한반도의 통일이 요원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총 5번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제1기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강의 후에도 북쪽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갖기로 하여 한반도와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만남

이번 교육을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제안하시고 강의로 진행해주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준우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회복지는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일이 된다면 북쪽 주민, 특히 변두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의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긴 분단으로 언어와 문화 등 많은 것들이 다른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북쪽의 사회복지사들과 소통을 하거나 직접 북에 가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북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두 번째로 실제로 갔을 때 사회복지실천 또는 사회복지사들을 북에서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1기를 시작으로 교육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 교육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다면 무엇일까요?

이 교육이 씨앗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씨앗은 바로 북쪽의 사회복지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쓰여질 인적 자원과 북쪽의 사회복지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리더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요. 씨앗의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과 리더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Q. 남북 사회복지의 통합 모델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또는 해당 지역의 욕구들을 발굴하고 충족시켜 주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실천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북쪽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고용 복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교류가 없었던 남과 북의 문화적 또는 민족적 동질성을 찾기 위한 인간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교수님은 평양에 건축하고 있는 대동강장애인 회복원의 설립에 학술적, 기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과 다른 북쪽의 수화언어를 연구하여 수화언어 통역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멀어보이는 통일이지만 그 통일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준우 교수님의 비전과 열정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준우 교수



후원개발 사업

저금통수거
통일박람회
강남GS안과 협약식
바자회

저금통 수거

2016년 4월! 국제푸른나무의 '사랑나눔' 후원모금 저금통을 수거하였습니다. 지난 해 1월~6월에 저금통과 해피빈 등을 통해 후원된 모금액으로는 북녘 원산애육원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내복을 전달하는 캠페인에 사용되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서울지역 10곳, 충남 지역 11곳, 총 21곳의 영업장에 저희 아크릴 저금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통일나눔가게 1호
두레주르 북아현점



2016년
통일나눔가게 2호
충신대 구내서점



2016년
통일나눔가게 3호
차이나클럽



2016년
통일나눔가게 4호
요거프레소 예산역점



2016년
통일나눔가게 1호
두레주르 북아현점

통일박람회

지난 5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공원에서 통일부가 주최하는 제2회 통일박람회에 국제푸른나무도 참여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부스에서는 전시준(북한물품), 체험준(통일한반도 지도 맞추기, 남북한 낱말 맞추기), 포토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GS안과 협약식

7월 25일 월요일! 강남GS안과와의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 후원자님들께 무료검진 및 회원 특진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아이들 장애인들 검진도 언젠가 같이 가주시기로 하셨으며, 아프리카아이들을 위해서도 헌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3세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8월 17일 수요일에 국제푸른나무 주관으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1층에 후원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으로는 2016 리우패럴림픽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푸른나무의 특별한 후원자를 만나보기 위하여 찾던 중,
북녘의 고아와 장애인을 위해 기도하며 2011년부터 매달 빠짐없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
최장기후원자! 국제푸른나무의 씨앗 홍지영 후원자님과
장기후원자 중에서 최연소 후원자이신 뿌리 임예진 후원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홍지영 후원자님

홍지컴퍼니 (<http://storefarm.naver.com/hongjicompany> / 검색창 : 홍지컴퍼니)
블로그 (<http://blog.naver.com/lunahong80> 꿈꾸는 홍지)

후원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컴퍼니(온라인여성의류쇼핑몰)를 운영하고 있는 홍지영입니다. 이렇게 국제푸른나무 소식지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래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번 9월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거 홍지'로도 활동하고 있고 캘리그래피, 그림 등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 계기와 후원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수련회에 강사님으로 광수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실현하고 싶다는 비전을 들었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하면서 국제푸른나무의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실 때 마음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북한에서 만든 냄비 받침을 후원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왠지 몽클하고 하루 속히 통일이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국제푸른나무의 최장기후원자로서 5년 동안 빠짐없이 후원하고 계시는데, 후원자님께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어머나!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싶네요. 국제푸른나무의 5주년을 축하드려요! 저에게 나눔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는 통로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같은거예요. ^^ 오랫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해왔는데 저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참 기쁩니다. 지금은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낭독봉사도 하고 있고 국제푸른나무 비롯한 단체 몇 곳을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동안 국제푸른나무의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단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임예진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꿈꾸는 청년 임예진이라고 합니다.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 계기와 후원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 오래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회 청년부에서 여러 수련회를 고민하던 중 2011년 코스타코리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강사들을 초대되어 많은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 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국제푸른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간 교회언니의 추천으로 함께 후원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의 장기후원자 중 최연소인데요, 5년 동안 후원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후원금액인데도 대단한 것 같이 되어 뭔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전에 소식지들이 우편으로 왔었는데 한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두툼한 편지지가 도착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과 많은 후원자님들의 이름들과 뿌리카드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한 칸에 적혀있는 이름과 뿌리카드를 보니 나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고 지금도 그 카드를 보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처음 후원을 시작하던 그때 당연히 해야 하는 통일의 준비를 우린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북한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과 준비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대중들에게는 아직 크게 진전 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져 가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 사람들의 탈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세대가 통일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점차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진행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홍보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한 건전한 비전을 국제푸른나무가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여성, 장애인, 수재민 등 북한의 곳곳에서 힘든 곳에 손길을 미치고 있는 푸른나무. 힘들고 지쳐있는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북한에 희망을 뿌리고 계신만큼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전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북한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국제푸른나무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북한에서 만든 주걱과 숟가락으로 국제푸른나무를 홍보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마포밀알선교단.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마포밀알선교단 대표이자 장애인여자목사이신
조영숙 목사님부부를 만나보았습니다.

1. 먼저, 밀알선교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밀알선교단은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단체로 장애인들에게 전도, 계몽, 봉사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저희 마포밀알선교단은 그룹홈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통은 선교의 대상이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장애인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로서 복음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의 주체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마포밀알선교단의 비전입니다. 장애인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 계기와 후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목사인수를 이번 4월에 받았어요, 주님이 저를 장애인선교단을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서울 여교육자들은 많으나 장애인여자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에서 대예배 때 설교 준비를 해달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고민을 하다가 ‘북측의 장애인’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이 궁금하여 찾아보니 그때 ‘국제푸른나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우연히 교회에서 국제푸른나무의 사무총장이신 김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푸른나무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측장애인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의 일부를 국제푸른나무에 후원하게 되었죠. 그렇게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꺼려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실천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었을 때 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원한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게 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한 길로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국제푸른나무에 후원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4. 마포밀알선교단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설립한지 46년 되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서 통일을 위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통일을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계속 심어왔잖아요, 그 통일은 이루어지되, 민주적, 자주적, 복음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나라 정권이 주도적으로도 안 되고, 북한 정권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가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내다 보면 때가 될 때 많은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5.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푸른나무라는 단체를 통해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몰랐을 뿐 국제푸른나무가 왕성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더욱 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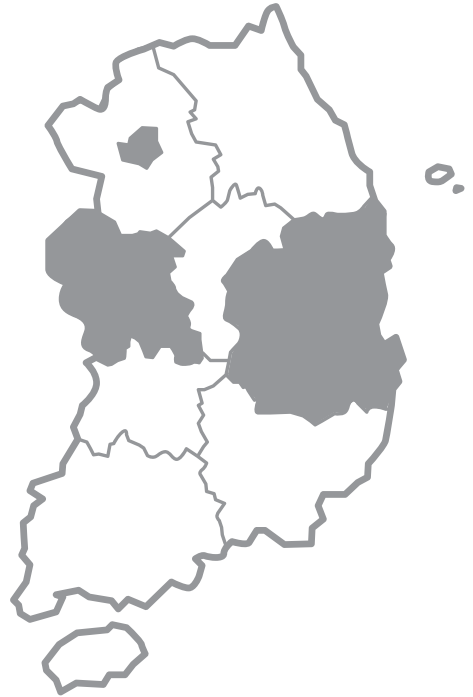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후원이 끊기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국제푸른나무 지역본부소식

서울/경산/충남



국제푸른나무 지역본부

서울



희망나눔콘서트 공동주최

국제푸른나무의 새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지역본부는 6월 14일에 평양민속예술단과 희망나눔 콘서트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북역 중인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탈북자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빵 나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가정의 독거노인에게 매주 목요일에 빵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사랑도 나누어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귀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나눔 및 바자회

서울지역본부는 매주 650여가정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반찬나눔활동을 중심사업으로 이/미용봉사, 집수리 지원 등 사회공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찬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5월, 9월 3차례에 걸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산지역



경산청소년가요제 주최

청소년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산지역 본부는 지난 6월 18일 청소년들을 위한 경산청소년가요제를 주최하였습니다. 가요제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하였고, 미래의 인재들을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Smile Tour

11월 18일 금요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경산 거주 청소년 15명을 선발하여 '청소년 Smile Tour'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전쟁기념관,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을 투어 하였고, 서울에 처음 온 아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힐링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

경산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산지역본부는 경상북도 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 학부모,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충남지역본부 개소식

지난 2월 27일 충남지역본부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의 새가족으로서 충남지역 본부는 후원자개발을 위해 교회를 찾아 찬양콘서트와 말씀사역을 하고 있으며,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병원, 카페, 식당등) 저금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푸른나무 사업본부소식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



무룬다바 트리니티 초등학교 개교식

10월 9일 무룬다바 트리니티 초등학교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 행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이다보니 개교식이 마치 잔치집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Chuma 유치원 건축

푸른나무아프리카리더십은 유치원사업으로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Chuma (개발이란 코사어) 유치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32번째 유치원은 12월 방학기간 건축하여 2017년 1월 개원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중에도 렉키가 전담하여 순조롭게 건축 중입니다.



이바투 언어 전문학교 한국어반 개설

마다가스카르 이바투 언어 전문학교의 한국어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반과 불어반에 이어 한국어반이 개설 되었고, 김경숙 선교사가 한국어반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학생들의 눈빛이 기대로 차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팡갈란 운하 의료선 제작

마다가스카르의 700km 팡갈란 운하(Pangalane Canal) 의료선 사역을 위하여 제작되고 있는 보트입니다. 현재 하부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보트가 완성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후원자현황

..... 개인후원자(정기/일시)

가병관	권용명	김미옥	김어진	김정훈	김현자	박광희	박정아	손명숙	심승보	원지희	이계명	이수하	이재원	이혜경
강기석	권은일	김미진	김어진	김재훈	김현주	박난영	박정아	손미라	심완희	유나이	이광재	이수현	이재현	이혜인
강명기	권은경	김미현	김연서	김종무	김혜경	박다하	박정오	손복식	심재련	유미정	이광호	이수복	이정권	이혜자
강명숙	권재희	김미희	김연섭	김종수	김해미	박대웅	박정운	손소정	심정	유병선	이국희	이승철	이정미	이호
강명희	권지은	김민구	김연숙	김종신	김혜선	박대현	박정환	손아라	심정수	유새빛나	이귀우	이승현	이정민	이호진
강미아	권지현	김민정	김연아	김종열	김혜숙	박동수	박중선	손은경	심현보	유영기	이규민	이시온	이정아	이호숙
강민식	권하영	김민우	김영권	김종엽	김혜연	박동훈	박주한	손은미	심현화	유영옥	이규진	이신임	이정애	이호정
강복원	권혁주	김병하	김영민	김종영	김혜옥	박두진	박주희	손종원	심희숙	유영준	이금순	이아침	이정은	이호주
강성호	권혁훈	김병현	김영자	김종생	김혜진	박두태	박준수	손준영	○ 안미연	유옥숙	이나미	이애린	이정은	이화선
강솔아	금장숙	김보경	김영주	김주아	김혜진	박만중	박중원	손태웅	안병재	유원경	이남주	이예스터	이종란	이후남
강수정	기범석	김보아	김영진	김준	김환석	박만호	박지영	손하연	안보람	유인아	이다나엘	이연심	이종수	이희도
강영범	김기영	김복경	김예성	김준태	김환진	박부부	박지원	손홍연	안성환	유일한	이다함	이연옥	이종예	이희영
강영은	김강미	김서무엘	김예은	김준홍	김효정	박미경	박창화	송경섭	안송희	유정순	이택기	이영숙	이종호	임경아
강영희	김강은	김상미	김예은	김준자	김훈식	박미경	박철웅	송기철	안수민	유정현	이도균	이영선	이주나	임경희
강재은	김경숙	김성우	김요셉	김지선	김홍기	박미연	박태운	송대현	안영희	이동원	이동길	이영일	이준하	임규리
강옥수	김경숙	김상운	김요한	김지성	김희목	박미향	박평화	송대현	안예선	유현주	이동선	이영주	이주리	임다은
강용규	김경순	김선휄	김용은	김지연	나경옥	박민하	박하니	송도식	안우찬	유희덕	이동현	이영택	이주연	임명오
강원옥	김경애	김석원	김용중	김지원	나혜진	박병관	박현정	송명희	안종범	육지현	이두현	이예진	이주혜	임보람
강은진	김경희	김선아	김유미	김지윤	남선경	박병우	박형길	송민호	안종주	육혜란	이루미	이예진	이준호	임서연
강은지	김광영	김선자	김유진	김지윤	남수경	박보라	박형숙	송서현	안지환	윤달상	이명순	이옥분	이중원	임성진
강지훈	김귀연	김선화	김유경	김지현	노선영	박상준	박형진	송선옥	안현정	윤병숙	이명순	이옥석	이지선	임영화
강지혜	김규명	김선화	김유경	김지현	노영식	박상준	박형진	송송희	양정천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영림
강조록	김규용	김성태	김유우	김지현	노영신	박상철	배명자	송영은	양순석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예진
강현정	김근수	김성라	김유자	김지혜	노은경	박선영	배미연	송용재	양영아	윤소민	이민숙	이용우	이지은	임용희
강희선	김근영	김성민	김유정	김지호	노준미	박선희	배서영	송은솔	양윤경	윤소영	이미지	이용희	이지해	임은희
강희옥	김기석	김성찬	김유희	김지희	노태성	박선희	배서영	송은솔	양윤경	윤소영	이미지	이용희	이지해	임은희
계나영	김기영	김성현	김유희	김지희	노태성	박선희	배서영	송은솔	양윤경	윤소영	이미지	이용희	이지해	임은희
계선정	김기옥	김성현	김유희	김지희	노태성	박선희	배서영	송은솔	양윤경	윤소영	이미지	이용희	이지해	임은희
고동주	김난주	김성희	김유진	김지현	노영신	박상철	배명자	송영은	양순석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예진
고성근	김남희	김성희	김유진	김지현	노영신	박상철	배명자	송영은	양순석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예진
고영진	김남정	김성희	김유진	김지현	노영신	박상철	배명자	송영은	양순석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예진
고정하	김남주	김성희	김유진	김지현	노영신	박상철	배명자	송영은	양순석	윤보라	이모세	이요셉	이지영	임예진
고혜숙	김다솔	김소연	김인성	김창성	마영자	류길남	류수현	류재훈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고희영	김다운	김소연	김인성	김창성	마영자	류길남	류수현	류재훈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류창식
공영란	김단비	김소현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공희승	김대근	김소희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곽수광	김대영	김소희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곽재은	김도훈	김수봉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곽해연	김도희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곽영덕	김동진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곽혜덕	김동석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구도윤	김동준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구본일	김락기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구을랑	김문정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국필원	김문희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국혜인	김미경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경윤	김미경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보민	김미란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석경	김미선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세정	김미선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영희	김미선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예은	김미선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권옥순	김미선	김수영	김인숙	김창희	명현진	명현진	모성원	문숙희	문영미	문영주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문정희

기업/단체후원자

장주혜 정현주 채송아 최혜자 홍성숙
 장진석 정현철 채유순 최혜정 홍승균
 장진영 정혜숙 채은화 최혜진 홍영실
 장진주 정혜은 채진아 최훈규 홍예지
 장태훈 정혜인 채희선 최희경 홍의선
 장한나 정혜진 천권옥 최희선 홍주표
 장현봉 정효선 천지영 추명선 홍지영
 장현정 정휘진 천혜미 추수미 홍지은
 장혜경 정희정 최경일 추수진 홍찬희
 장혜주 조경순 최규순 추진성 홍하연
 장혜진 조두림 최금화 추한규 황경숙
 장호준 조미경 최다은 탁윤조 황미리
 전동민 조미라 최닷음 태승원 황선관
 전미연 조병숙 최민아 하길호 황수민
 전미현 조분진 최범섭 하상빈 황수진
 전소현 조성님 최병선 하세례 황윤미
 전수미 조성대 최병은 하연정 황윤정
 전영주 조성래 최보배 하여민 황은산
 전우정 조성효 최보형 하여진 황은영
 전우진 조숙희 최복순 하은경 황은혜
 전은주 조순희 최복화 하지성 황인숙
 전은혜 조승희 최서옥 한규현 황인영
 전재덕 조아름 최서정 한기봉 황지혜
 전재빈 조아영 최선영 황찬용
 전준환 조아영 최성수 한 빛 황현주
 전지아 조영완 최성은 한선미
 전환수 조영진 최성혁 한수정
 정가원 조은영 최세나 한숙자
 정경권 조원일 최세진 한아영
 정경민 조윤희 최소망 한장현
 정경순 조은비 최소영 한종훈
 정경인 조재숙 최수연 한주애
 정고는 조차성 최수정 한지은
 정공주 조천일 최수진 한진성
 정기영 조학래 최순희 한현진
 정기옥 조현진 최아름 한혜영
 정다운 조현진 최양희 한혜정
 정대훈 조혜숙 최영문 함태식
 정덕순 조혜옥 최영순 함호숙
 정모숙 조혜정 최유빈 해피빈
 정문자 조혜진 최윤주 허기쁨
 정미경 조희주 최윤지 허미정
 정미옥 조희진 최은성 허수영
 정미희 주미경 최재경 허수진
 정병순 주은주 최재민 허영미
 정보미 주은지 최정임 허준영
 정봉희 주정숙 최정하 허지옥
 정상호 지 연 최정희 허태연
 정선미 지은파 최 준 허태희
 정선용 지인희 최준원 허한나
 정선진 지한비 최지에 허혜수
 정성영 진수정 최지원 현은성
 정수진 진찬민 최진영 현지선
 정수진 진현주 최창민 형남식
 정수희 차가람 최충실 홍경의
 정연필 차인경 최한나 홍경자
 정찬우 차진주 최항기 홍대원
 정현덕 채민지 최현아 홍미봉
 정현옥 채빛나 최혜경 홍상호
 정현정 채석민 최혜옥 홍성길

기운차림봉사단
 (사)월드휴먼브리지 서울지부
 (사)평화3000
 (주)로하스피아
 (주)메디터스
 (주)아름다운비행
 (주)아모레퍼시픽
 (주)유엔아이팩
 (주)은빈
 (주)이스트쿤스트코리아
 (주)제일철강
 (주)한록물산
 100주년기념교회
 CBMC 인천 꿈나눔교회
 MCM본사 직원커퍼숍 카메론
 MOG
 WON FOUNDATION
 거룩한빛맑은샘광천교회
 건국대CCC
 경북교회
 경산중앙교회
 경산지역본부
 광교지구촌교회
 광야교회
 광양교회
 광영드림교회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국민은행 삼성타운
 국민은행 이촌지점
 기독교대한감리회 당진교회
 꿈이있는 교회
 꿈이있는교회
 남산교회
 남서울가스(주)
 남서울은혜교회
 다예교회 유초등부
 다예교회
 대구라운힐합창단
 대구새누리교회
 대아틀(주)
 대추발한의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광명
 텔리커서 레스토랑
 동강
 두레주르(예산)
 라온세무회계
 마포밀알선교단
 맥가이버 캔터(예산)

명성교회
 백석점거반
 분당그리스도의교회
 분당우리교회
 비키키 잉글리시
 사랑의 종소리 다문화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새빛중앙교회
 서울광업교회
 서울영동교회
 선한목자교회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세무법인 리젠
 세상의 빛 교회(조치원제일교회)
 스타트레인
 신부산교회 청소년부
 신안교회
 아웃리치 파운데이션
 여의도순복음교회
 염산교회
 영은교회
 예산제일교회 초등부
 예전침례교회 여성교회
 인랜드교회 USA
 일백복지재단
 일산은혜교회
 정병영(청주예향교회)
 주식회사 BT
 주안교회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차이나클럽
 찾아가는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커피상자
 코기코기
 통일소망선교회
 팜트리
 푸른나무교회
 푸른나무아프리카리더십
 하늘유통(총신대구내서점)
 한국기부재단
 한국밀알선교단체
 호주밀알장애인선교단
 홍콩한인교회

나눔 참여 안내

홈페이지	<p>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후원참여 >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 및 단체후원, 물품후원, 자원봉사참여” 중 선택 후 후원종류 선택하여 후원신청을 해주세요.</p> <p>.....</p>
전화	<p>국제푸른나무 사무실 Tel. 02-3482-2000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p>
무통장 입금	<p>아래의 국제푸른나무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국민 760737-04-007453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기부자 확인 및 연말 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입금 후 국제푸른나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p> <p>.....</p>
소식지	<p>소식지의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제푸른나무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p>
ARS	<p>전화 한 건당 5,000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여러 건의 후원도 가능합니다.</p> <p>.....</p>
종이저금통	<p>종이저금통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화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30개 이하 요청 시 우편료는 착불로 발송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p> <p>.....</p>
해피빈	<p>국제푸른나무 해피빈 모금함 페이지 http://happylog.naver.com/greentree.do 접속하셔서 회원님의 소중한 쿵을 기부해주세요^^ 쿵은 1개당 100원입니다. 100원이라는 작은 돈을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해주실수록 아주 큰 힘이 됩니다!</p>

1

캠페인 I

+5°C 사랑 내복보내기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겨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복을 입게 되면 체온보온의 효과가 있어 최대 5°C의 온도 상승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타클로스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잘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1만원: 사랑의 내복 1벌 지원

2

캠페인 II

비상식량 보내기



북한의 애육원, 육아원에 있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더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룽지를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누룽지는 북한 내에서 식량으로 측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량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제푸른나무의 오랜 거래처인 중국 심양의 사업장에 전달되고, 그 곳에서 비상식량을 구매하여 북한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1만원:** 2인분 하루 3끼(누룽지) 지원

3

캠페인 III

희망의 등불 보내기 "Light a lamp of Hope!"



희망의 등불 캠페인은 통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밤이면 촛불을 켜야 하는 북한에 낮에 태양광을 충전하여 밤에 전등으로 밝게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식 전등은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태양광 충전식 전등 구입 및 기타 필요한 물품으로 전달되어집니다. **3만원:** 태양광 충전식 전등 1개 구입

ARS 후원전화 **ARS. 060-700-1333**

후원 문의 및 신청 **T. 02-3482-2000**

후원계좌 **760737-04-007453** 국민은행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ARS후원전화 한통으로 1건당 5천원씩 후원하 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여러 건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greentreekorea

BETHLEHEM PLAN





베들레헴 플랜이란? (Bethlehem Plan)

베들레헴(βηθλεεμ)은 떡 집이라는 성경 신약 마태복음 2:1에 나오는 지명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플랜이란 예수님의 고향의 뜻이 [떡의 집] 이듯이, 예수님의 사상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결국 우리 국제푸른나무는 배고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는 것이 중심사역이기에 베들레헴(떡집)을 지어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북에 필요한 비닐방막 온실을 세워서 먹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사랑의 집이 되길 위하여 이 플랜을 세웠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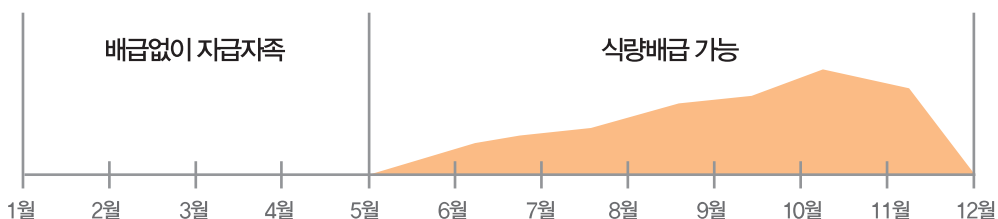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북녘은 지금 식물을 재배할 따뜻한 온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온실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

“북한, 수년간 엄청난 가뭄으로 기초 식량이 900만 톤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평균 500만 톤으로 줄었다.(생략) 춘궁기에 아사자가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NPR, 2012)

- 2012년부터 시작된 가뭄은 2015년 들어 엄청난 가뭄으로 불리며 날이 더 할 수록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 대부분 7개월의 식량으로 자급자족하여야 합니다.
- 온실(비닐하우스)은 일반재배에 비해 3배~5배의 수확량을 높여주어 높여주어 1년 중 식량이 가장 부족한 1월~5월(춘궁기)에 끼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춘궁기 1-5월 중순까지를 춘궁기라 부른다(보릿고개)





효과

1) 춘궁기 식량대체작물 생산

- 6~7월 파종, 8~9월 호박 생산시작, 12월 초순 수확 마감
- 1개 동 : 105평, 수확량 = 늙은 호박 3kg x 150여개, 총 수확량 0.5t~1t
- 약 3개의 호박과 옥수수 가루 등으로 쏜 죽은 200여명의 한 끼로 가능
- 최대 50일까지 버티는 보조식량으로 활용가능

2) 춘궁기 단축 효과

- 노지에서 4월 중순에나 생산되는 나물류의 생산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음.

3) 봄, 여름 대체 식량 조기 생산

- 늦겨울부터 준비 및 파종 할 시 식용작물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진행 추진일정

- ▶ 계획 및 준비 (약 1개월) : 사업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회의
- ▶ 현지 사전조사 (약 1개월) : 사전조사
- ▶ 물품수송 및 배치 (약 1개월) : 온실 자재, 수송 등
- ▶ 온실 시공 (약 1개월) : 온실시공 및 관리 인력 (5명) 노무 및 체류 등
- ▶ 분배투명성 (완공 후 2~3개월 사이) : 모니터링 인력 (3명), 체류, 자문 등
- ▶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완공 후 3개월 후) : 모니터링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피드백

1. 공사현장 사진 및 건축 과정에 대한 자료
2. 완공식 자료 제공
3. 파종과 재배과정, 그리고 소출에 대한 사진 자료제공

참여 방법

100평 짜리 온실 건설

- 50m x 7m = 약 105평
- 온실 1동 700만원(한국산)
- 중국에서 구입 운송 시 600만원
- 한 개 교회 = 한 개 온실(베들레헴)
- 북한 전역 100개 이상 건축 예정
- 중국단동지역에서 구입 반출 예정(중국산)

온실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37-01-002768,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사무국 연락처 : 02-3482-2000

후원 방법

- 1개 단체, 교회 한 개 베들레헴 지원
- 105평 (50m x 7m) 온실
- 중국산(아연도금 빔, 3중 비닐 방막), 운송비 포함 600만원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국제푸른나무 후원관리 담당

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협기술진흥관 3층 303호

04422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연말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 신청시 기입해주세요.
휴대폰(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소식수신여부 동의
E-mail	<input type="checkbox"/> 소식수신여부 동의
주소	

정기후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CMS 자동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약정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만원)	
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은행(카드사)		계좌번호 (카드번호)	
예금주(명의자)		예금주생년월일 (카드유효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국제푸른나무에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후원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국제푸른나무로 지정 출금일에 출금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출금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제푸른나무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금융기관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며 상기 후원금을 CMS자동이체 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 및 기업 후원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국제푸른나무재단 안(眼)검진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1. 사업대상: 국제푸른나무재단 회원 및 직계가족

2. 사업내용: 노안/백내장 안(眼)검진 및 단초점 백내장 수술비 지원

3. 신청방법: GS안과 상담·예약 02-3469-0900

4. 제휴안과: GS안과의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8층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10M 거리)



Start your beautiful life with AMOA



한인권 회장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재민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의사
대한폐경학회 상임위원회 위원
생명공학단지 조성발전위원회 위원
보건산업벤처협회 부회장
대한골다공증협회의 부회장
메이린 안티에이징 클리닉 줄기세포센터 원장
청담아모의원 원장
미국 Mayo Clinic 연구원(Post, Dr.)
Board Member, Journal of Clinical Densitometry

의료진

서윤표 대표원장(피부과) 유중하 원장(눈·말성형)
최승민 부원장(반영구) 이주영 부원장(반영구)

AMOA
GLOBAL SERVICE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모아 모아서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돌려주는 곳 아모아 피부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0 2층 T. 02-543-9080



We share God's Love with the disabled and orphans is North.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www.greentreekorea.org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업기술진흥관 303호 Tel. 02-3482-2000